

민화

귀신발 옛날

김형운

An illustration within a dashed border showing three faces. On the left is a large, stern-looking face. In the center is a smaller, smiling face wearing a traditional Korean headpiece. On the right is another face, partially obscured.

흐흐...
이만하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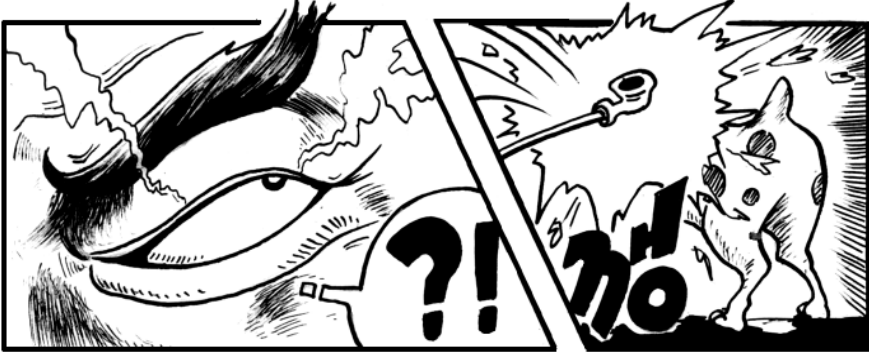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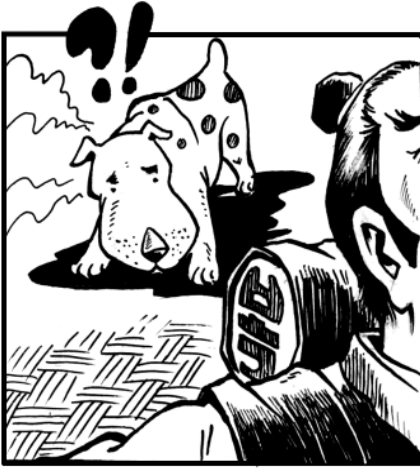




애야. 어서 상을 차려
들여오라.









심심해서 죽겠네.

참 별나게 사는 사람이지요? 하루종일
먹기만 하자니 배도 한도가 있지, 하루
종일 춤만 추자니 땀이 나고 팔다리가
아프지, 그렇다고 누워 잠만 자자니 밤
시간만 해도 넘쳐하지... 참으로 부자
는 심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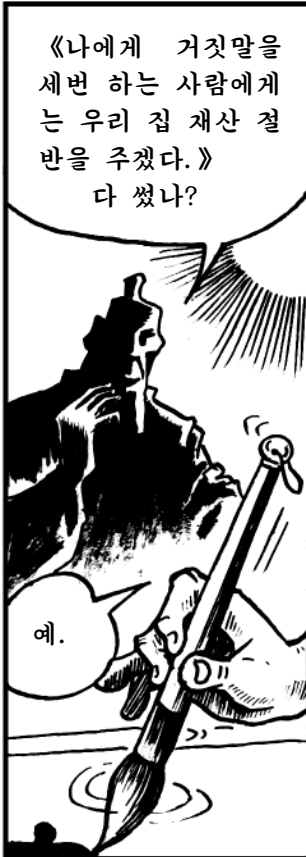
어떻게 하면 하루
하루를 재미있게
보낼수 있을까?





내 부를레니 멋
지게 쓰게나.

또
무슨 수를...
알겠시다.



《나에게 거짓말을
세번 하는 사람에게
는 우리 집 재산 절
반을 주겠다.》
다 썼나?

예.



그래, 바른 말
을 듣는건 싫증
나는 일이거든.
거짓말을 듣는
게 참 재미날것
같애.

어때?!

그거 정말 명안이
오이다. 켈켈...



거짓말을 세 번...
우리 집 재산 절반...
허- 대단하군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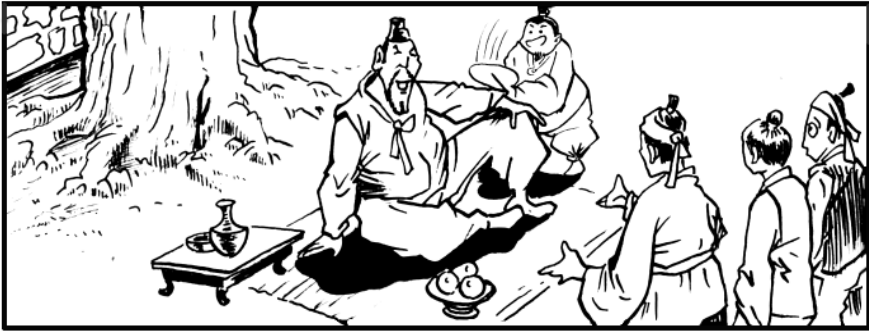
부자집재산
절반이라...
거 해볼만한
일인데...



여보게, 높은 벼슬아
치들이나 장사군들도
감쪽같이 속여넘기는
한다하는 자네가 한번
나서보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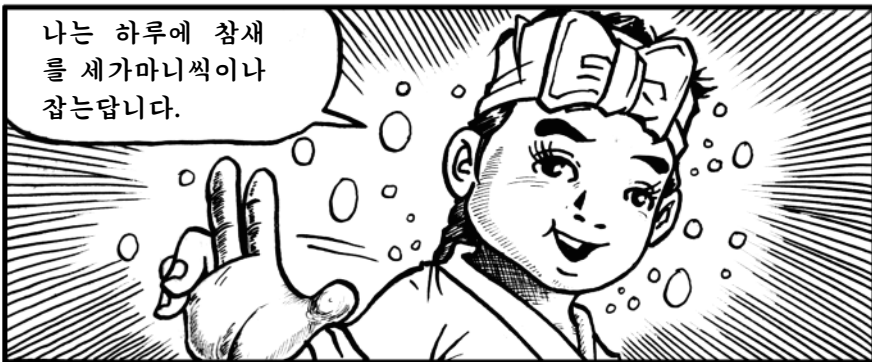
한번
나서볼가?



















우린 벼농사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짓는답니다. 아주 험하게요.

어떻게 말이냐?



봄에 남들은 모판에 모를 부을 때 우리는 내가에 나가 벼들가지를 배운답니다. 그것으로 밭을 엮지요.



그건 무엇하려구?



예, 그걸 논에다 펴니다. 그리고 그우에다 벼씨를 뿌리면 짬마다 벼알이 들어가서 모를 낸 것처럼 줄을 지어 나옵니다.











이것은 두말없이 거짓말이었습니다.
그런데 이걸 어쩍니까?



이걸 사실이라고 한
다면 거기에 씌여진
대로 돈 300만냥을...
아니, 아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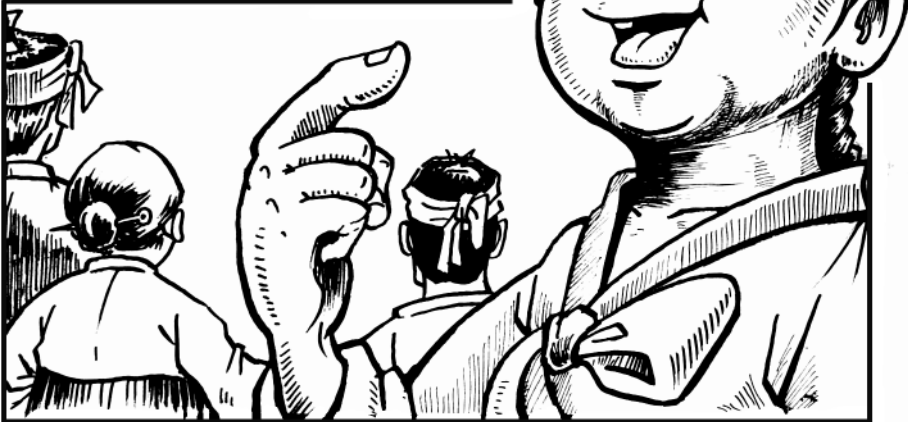


만약 거짓말이라고
한다면 내 재산 절
반을... 아이쿠!



내 재산 절반보다 돈
300만냥이 엄청나게
많으니... 할수 없군.

세끼이름 거짓말만아







이리하여 숲구이총각은 부자놈을 골탕먹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가졌답니다.





길
 가
 는
 길
 이
 먼
 길
 이
 다



해설 : 바빠서 질러가느라고 들
 어선 길이 무사치 않아
 도리어 시간이 더 걸렸
 다는데서 아무런 타산과
 준비도 없이 몹시 서둘러
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
 치게 되거나 반복공사를
 하게 되는 경우를 교훈적
 으로 이르는 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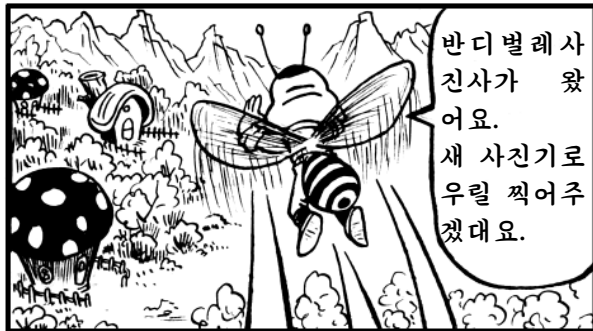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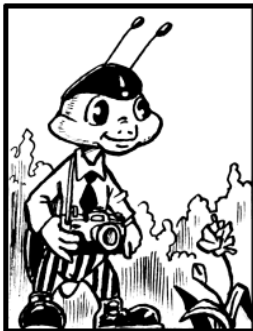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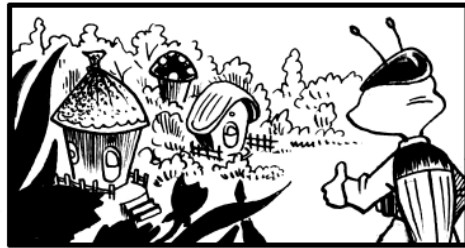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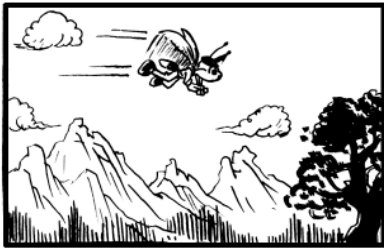
퀴즈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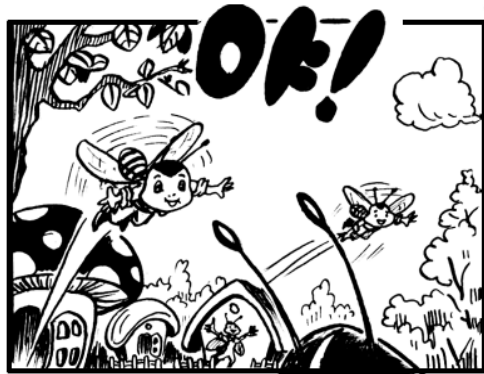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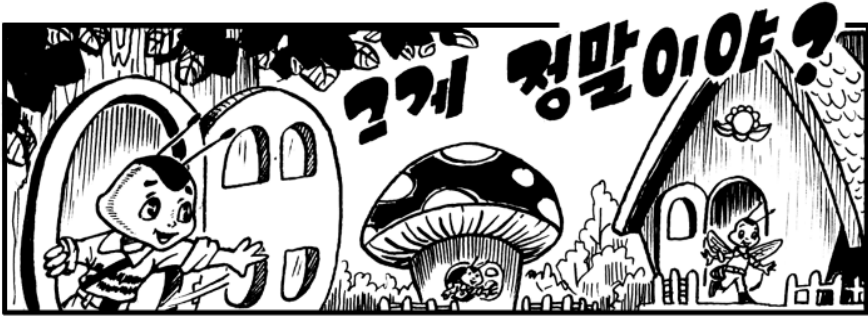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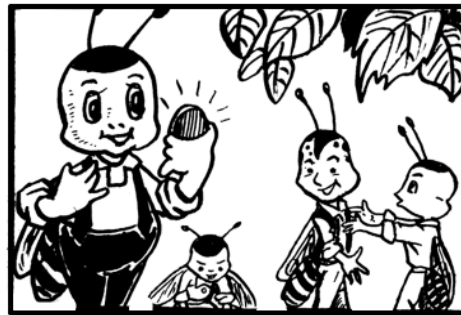
동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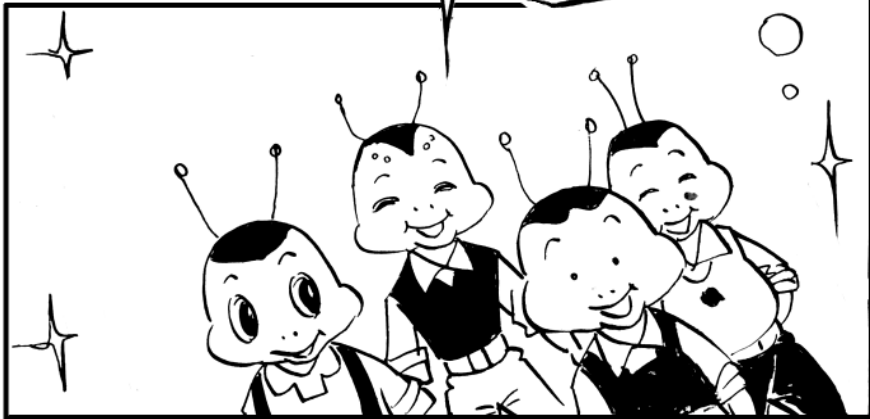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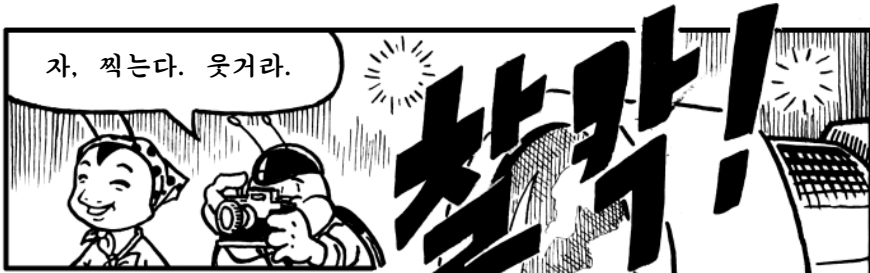
반디벌레의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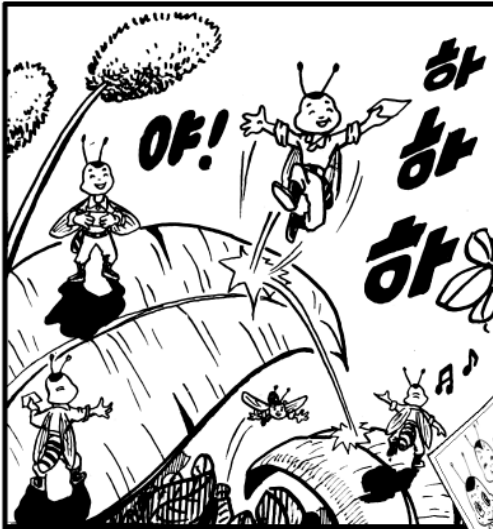
김박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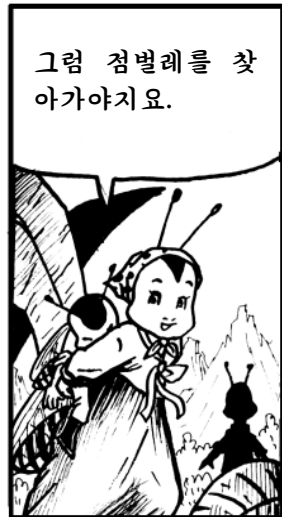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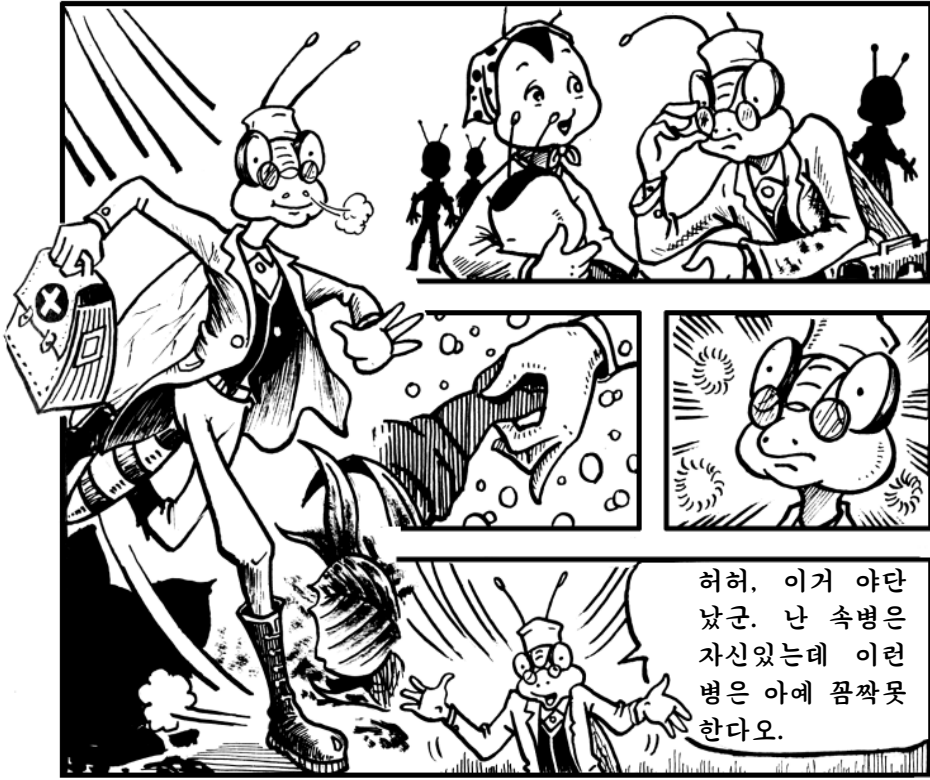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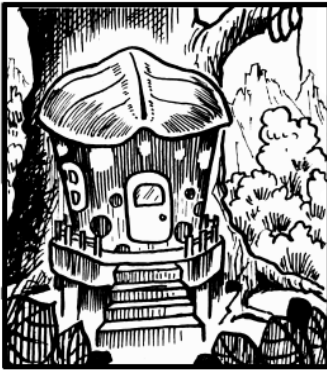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히히, 그거 참 안됐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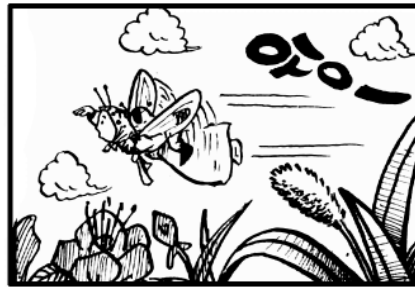


그런데 듣고보니 침이나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구만요.



그럼 어떡해요?

사진찍은 반디벌레한테 물어보면 잘 알리다.





모두들 이해 병을 못 고치겠다니 어
찌면 좋아요, 네?

너무 걱정
마시우.

노랑봉봉이가 아마
무슨 일을 잘못된 것
같은데 이제 새 마
음을 먹고나면 저절
로 일어나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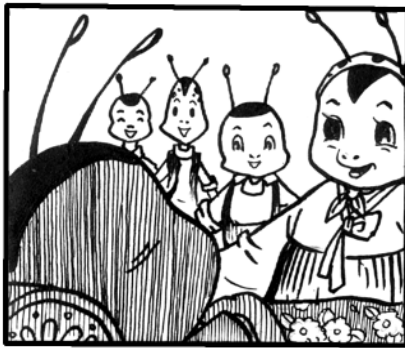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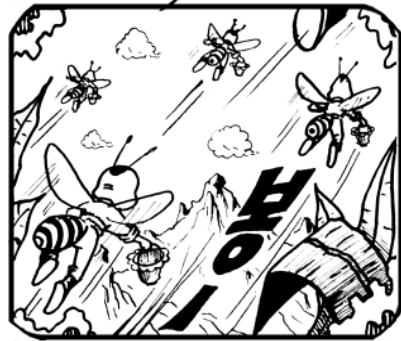
내가 노랑이를 일 잘하는 애라
고 믿기만 하면서 잘 도와주지
못했구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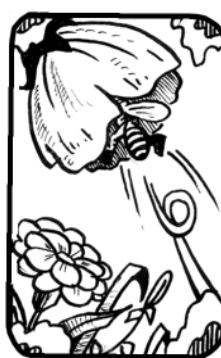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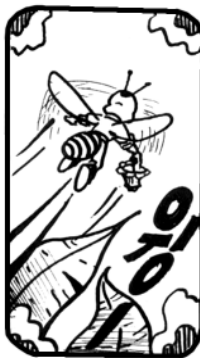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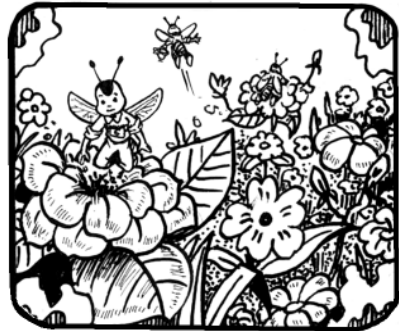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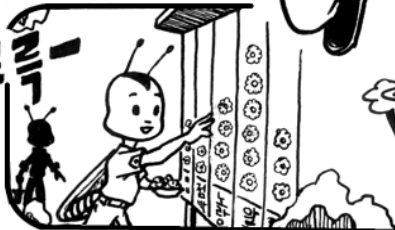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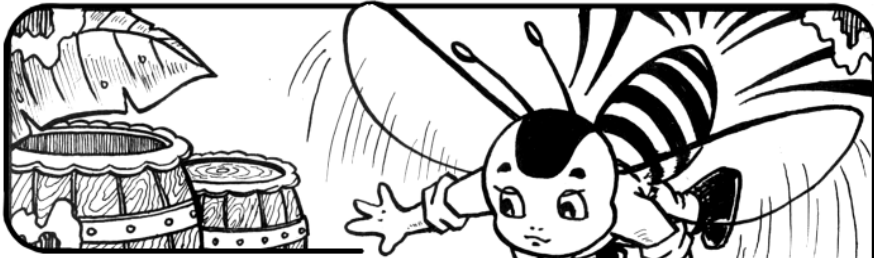
그런데 애가 도대체 무슨 일
을 잘못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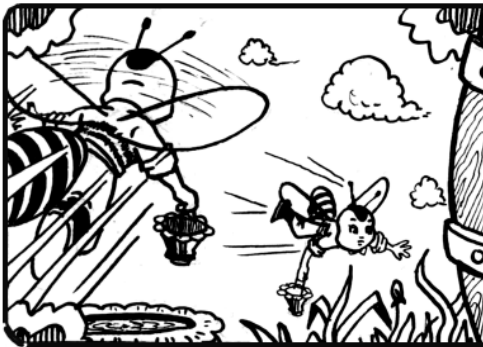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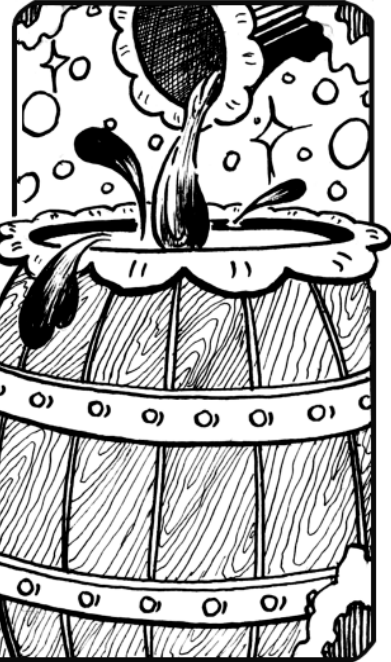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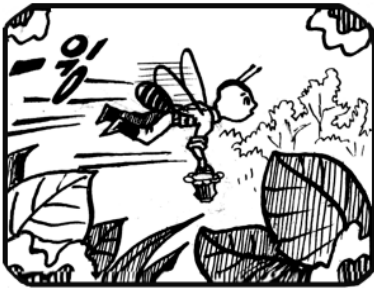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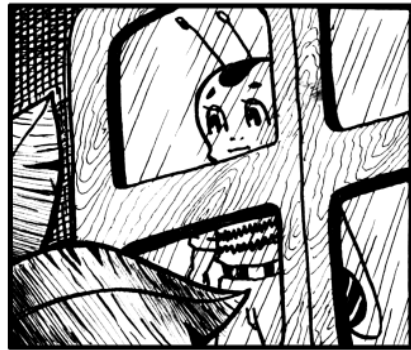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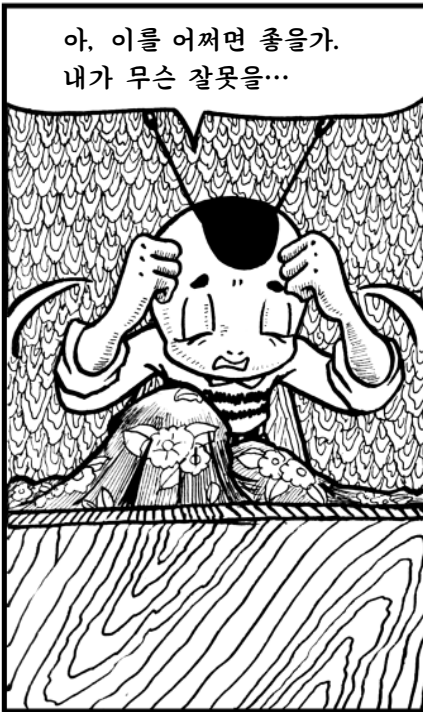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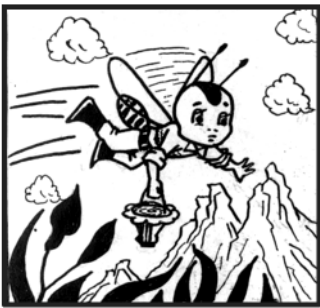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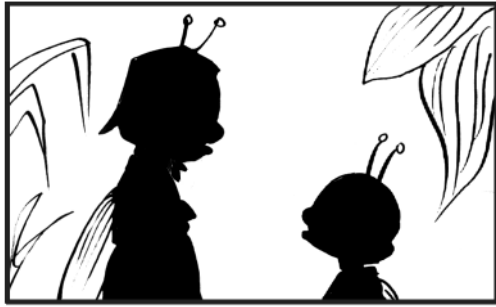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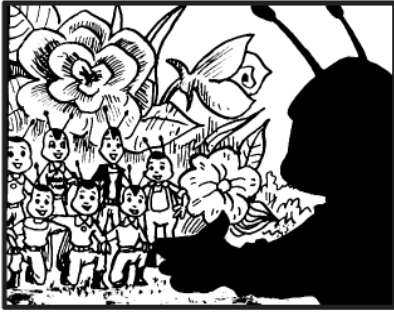
아침일찍 피어나는 나팔꽃아, 그리고 룬담꽃아, 입을 열고 내게 꿀을 주렴.



얘들아, 난 해뜨기 전에 꿀을 모아야 한단다. 전번엔 내가 잘못했어. 꼭 고칠래야.







새벽
비오는 날 소꼬리가
간다



야, 일손을 다그쳐. 지주나리가 오늘중으로 김매기를 다 끝내라구 했던 말이야.

저 마름놈이 참 귀찮군.

비오는 날 소꼬리같은게 정말 꼴사납기 그지없수다.



해설 : 비를 맞은 소꼬리가 흔들는대로 가서 들 어붙듯이 반갑지도 않은것이 들어붙어 치근치근 귀찮게 구는 경우를 비겨 이 르는 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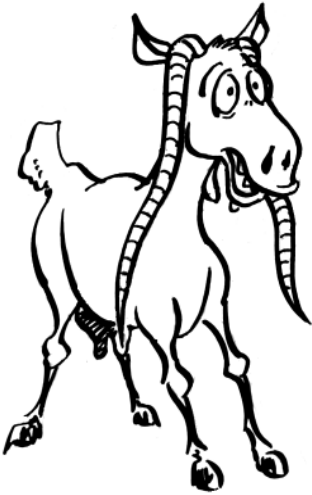


문제



① 기둥은 기둥인데 집 지을수 없는 기둥은 무엇일까요?

② 살아서는 병어리였는데 죽어서는 노래부르는것이 무엇일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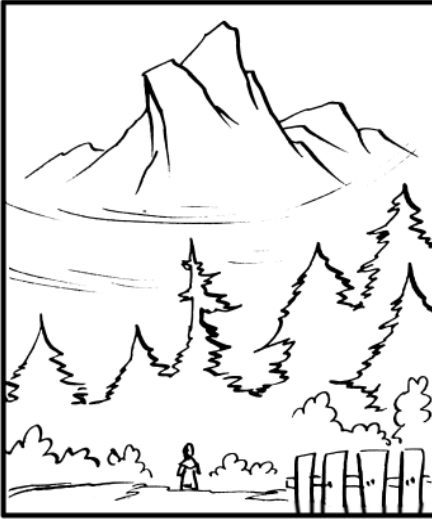
③ 뿔은 뿔인데 내리뜯은 뿔이 무엇일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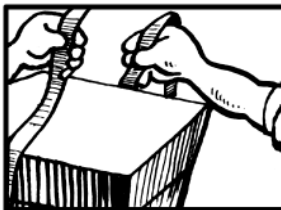
④ 애기때는 꼬리로 다니고 커서는 발로 다니는것이 무엇일까요?

세계명작동화

별안간 버리수권



생일을 축하한다.
이건 내가 가져온 너의 생일선물이란다.





할머니,
고마와요.
정말 멋있어요.



멍멍 - 야옹 -
참 이쁘데.



잘 어울리는구나.



정말 고운
빨간 머리수건
이구나.

이렇게 되어 소녀는 모든 마을사람들
로부터 《빨간머리수건을 쓴 소녀》로
불리웠답니다.



어느 날

할머니가 요즘 감기에 걸려 누워계시니 이 포도술과 빵을 가져다드리고 문안하거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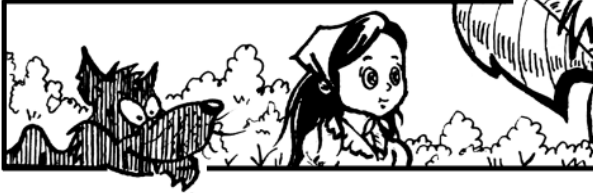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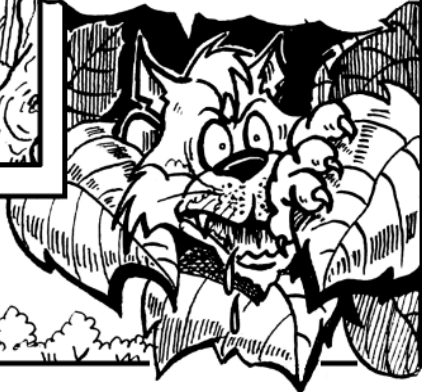


가는 길에 낫모를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판장난을 하여서는 안된다.

알았어요.
어머니.



히히히... 빨간머리수건을 쓴 애가 참 먹음직하구나.



빨간머리수건을 쓴 소녀야, 지금 어디로 가느냐?

알는 할머니에게 병문안 가요.



그런데 승냥이 아저씨는 어째서 군침을 흘리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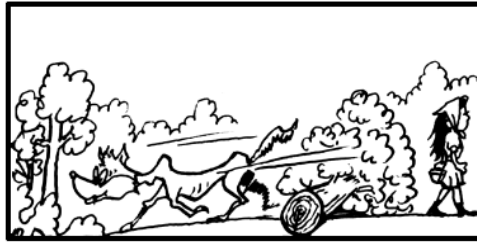
그... 그건 광주리에 있는 빵이 먹음직해서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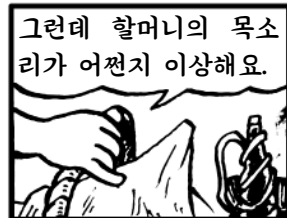
그래요?













감기에 걸렸으니 그럴수 밖에 없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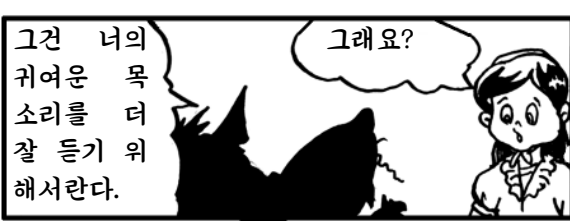
그래요?



아니, 할머니의 귀가 왜 이렇게 크게 되었나요?



이건 야만사냥대



그건 너의 귀여운 목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.

그래요?



그런데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큰것은 무엇때문이에요?



오, 그것은 너의 얼굴을 더 잘보기 위해서이다.



그런데 손톱이 길어지고 입도 커지고 째진건요?



그건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이다!



아, 맛이 좋군. 두사람이나 먹었으니 배가 불러서 잠이 오는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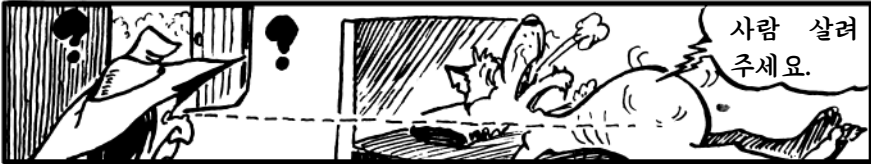




이건 무슨 소리일가? 쿵을 크게 고는 소리는 할머니의 집에서 들려오지만 이 소리는 할머니의 소리가 아니다. 이상하구나.



야단났구나. 할머니가 승냥이한테 먹히운게 틀림 없어.







아, 잘 잤군. 목마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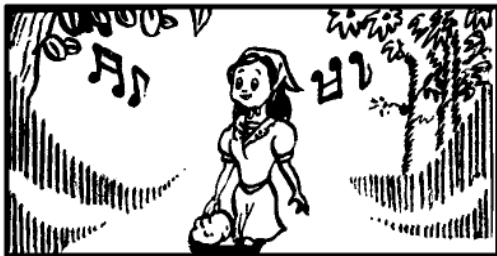


이거 이상한데.
왜 이렇게 배가 무거울까?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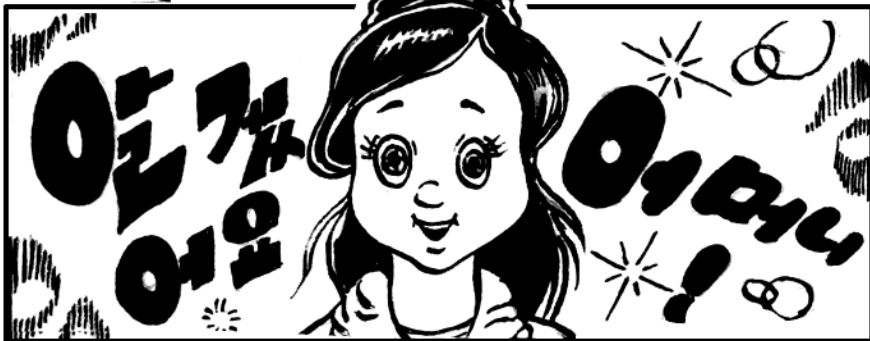
집에 돌아온 소녀는 어머니에게 갔다오는
길에 있던 일을 죄다 말씀드렸답니다.



그러니 너와 할머니가 정말
큰일났었구나.



이제부터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
하거나 길가는 도중에서 떠장난을
하면 안된다.





사화

아려

리일룡

이 이야기는 평양성건설이 한창이던 때에
있은 일입니다.



평양을 가락지처럼 뺨
들러 에워싸는 방대한
성을 건설하느라 평양에
는 부역군들로 붐비었고



사구려 -
붉은 땀기 사구려.

청암장



때를 기다린듯 장마당이 흥성
이었는데 청암장도 그중의 하
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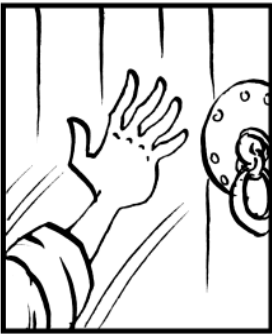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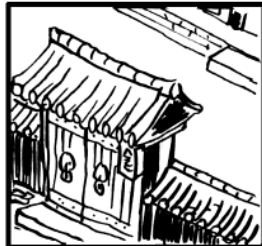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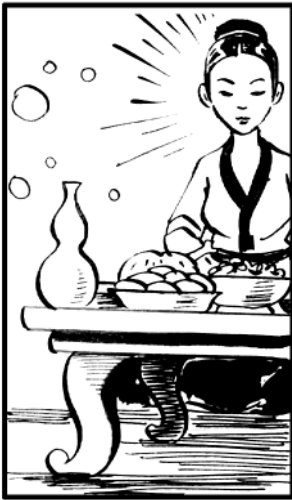
그중에서도 제일 돈을 악착하게 긁어모으는 패가 장안패였는데 그 두령 왕손이는 청암나루로 들이대는 장사배를 통채로 가로타고앉아서 되거리로 묵돈을 벌며 우쭐렁거리고 있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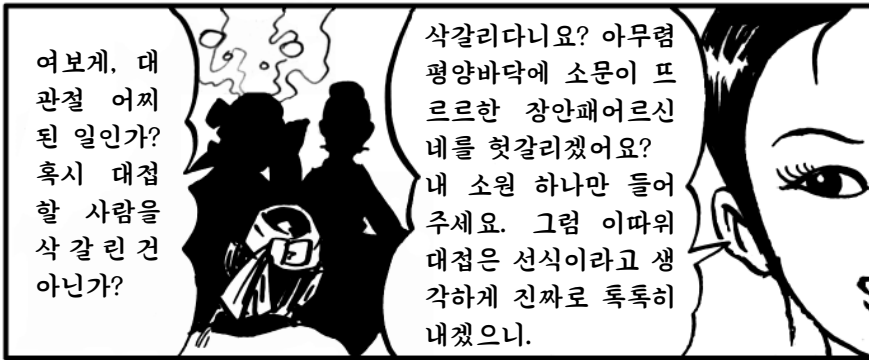
성을 쌓느라 고생들이 말이 아니군. 국사는 나하구 인연 없으니 그새 돈이나 실컷 벌겠다.











여보게, 대
관절 어찌
된 일인가?
혹시 대접
할 사람을
삭갈린 건
아닌가?

삭갈리다니요? 아무렴
평양바닥에 소문이 뜨
르르한 장안패어르신
네를 헛갈리겠어요?
내 소원 하나만 들어
주세요. 그럼 이따위
대접은 선식이라고 생
각하게 진짜로 툭툭히
내겠으니.



그 소원이란게 뭔데?

사실 전 주암산 아래
마을에 사는 장자의
외딸이에요.

저는 흠아버지술하에
서 금지옥엽같이 차
랐답니다. 시집가서도
홀로 계시는 아버지가
늘 마음에 걸렸어요.
그런데 하늘같은 저의
아버지가 그만에야 중
병에 걸렸답니다.
아버지의 병인즉 백약
이 무효하여 생명이
경각에 달했는데 한
명의가 하는 말이 이
병에는 올빼미가 특효
라는거예요.





그런데 저의 서방이라는 사람은 우리 집 재물에만 흑심이 가득한 자라 장인이 죽기만을 바라며 《아니, 세상에 나서 한 번도 구경못한 올빼미를 이제 어디 가서 구해올테요?》 하며 딱 잡아떼지 않겠나요.

제 홀로 주먹을 부르쥐고 미친년처럼 천방지축 헤맸지만 도무지 구할 길이 있어야지요. 그래서 제 이렇게 장사박은 청암장의 어르신께 걸음을 하게 되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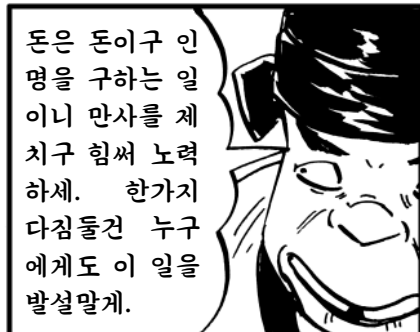
음, 사연인즉 그렇단 말이지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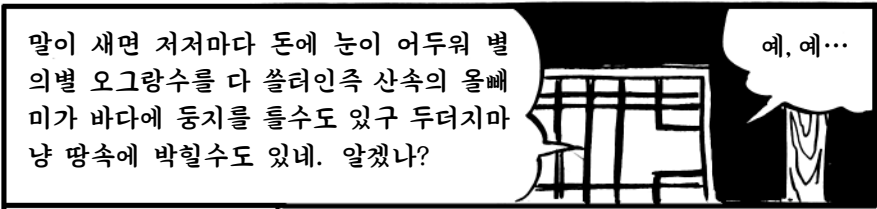
올빼미만 구하면 수만냥이라도 선뜻 내겠으니 구해만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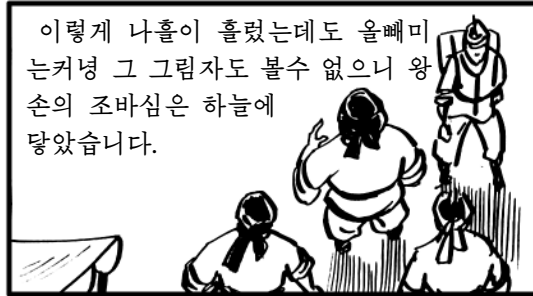


이야말로 벼락횡재할 일이 아닌가? 고양이뽕 내놓고는 없는게 없는 청암장에 올빼미가 아 없나? 어라 봉황인들 없나?



돈은 돈이구 인명을 구하는 일이니 만사를 제치구 힘써 노력하세. 한가지 다짐들건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말게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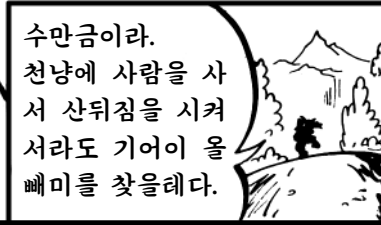
아, 글썄 올빼미 한마리에 수만금이 뭐냐 말일세.



아버지의 목숨이 아침저녁을 다루는데 그간 수만금이 무슨 대수라구...



알겠네.



수만금이라. 천냥에 사람을 사서 산뒤짐을 시켜서라도 기어이 올빼미를 찾을테다.

장 마 당 심산오지로 산뒤짐할 사람까지 파한 다음날. 그러니 올빼미를 찾아 꼭 닷새째 헤맨 날이었습니다.



이게 뭐야? 올빼미가 아니야?!

금으로 만든 새인들 이보다 더 귀했겠습니까.



웁구나.



이거 왜 이러오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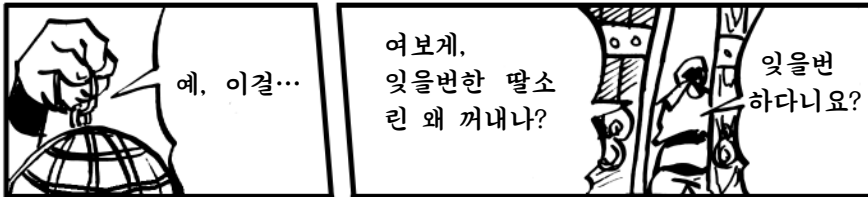




이건 누구야?
아, 병자의
안주인인가?

저, 딸이 어디 갔수?

뭐... 딸?



예, 이걸...

여보게,
잊을뻔한 딸소
린 왜 꺼내나?

잊을뻔
하다니요?



3년전에 해산
을 하다 불쌍
하게 죽은 애
생각을 하면
가슴이 터져와
죽겠는데...

뭐요?

그럼 이 집에서
달려나오군 하던
계집은 딸의 허
울을 쓴 귀신이
였소?

그 고운 아씨말인가?
그야 자네가 더 잘 알
렌데.

그애 말이 시집에서 차기쪽
식구들을 좋아하지 않아 막부
득이 표가 나는 우리 집에서
만나기로 했다고 사정사정하
길래 허락해주었을뿐인데.



유오아

당신의 헌혈성원도 아닌데

당신은 왜 산토끼를 쏘
아잡았는가요?
당신은 우리 사냥군협회
성원도 아니지 않소?

그럼 이 산토끼는 왜
우리 러밭에서 가두배
추를 먹었는가요?
이 산토끼는 우리 집
식구도 아니지 않소?



우 화

사슴할아버지
가 병을
다시
찾아
오는
이유

김 박
민





사슴할아버지, 병만 고쳐주면 내 집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신세를 잊지 않겠어요.



허허, 여보게. 그런 말 말라구. 내가 뭘 바래서 이웃들의 병을 고쳐주는줄 아나?



그래두 어디 그럴나요? 이제 두고보시라요. 난 절대루 신세를 잊지 않아요.



그런 말말구 어서 이 약이나 가져다가 달여먹어보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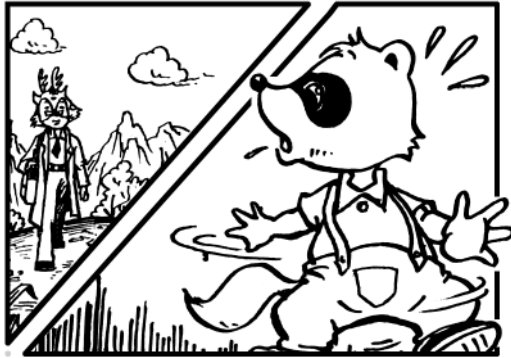
몇번 써야 병이 깨끗이 나을테니 자주 오라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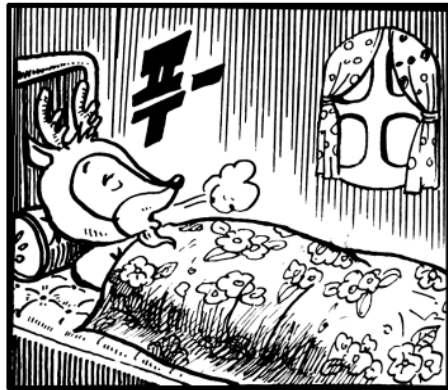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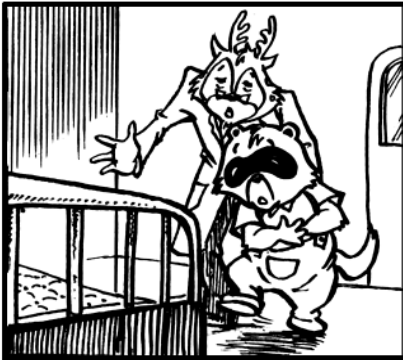
고마와요. 사슴할아버지.



오소리는 사슴할아버지한테 한 말을 몸시도 후회했습니다.









속담 **하늘이 열쪼각이 나더라도**

